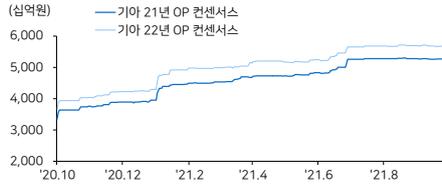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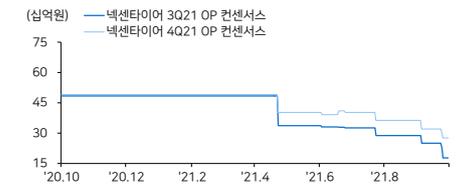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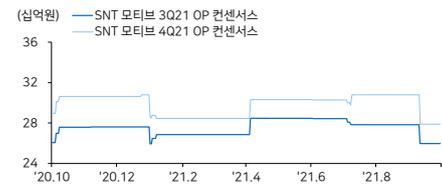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운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해외 수급 17% 뛰었다...반도체 공급난에도 수익 ↑ (데일리안)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수출 금액이 지난 1년간 30% 넘게 증가. 대당 평균 수출단가는 17% 증가함. 투싼, 스포티지 등 고부가차종인 SUV 판매가 늘어난 데다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수출이 크게 늘어난 효과.
<https://bit.ly/3EuYw8J>

현대차·기아-ETRI,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손잡는다 (전자신문)

현대차·기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ETRI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음성·언어와 도로·차선·후미등, 로봇의 인간 행동 인식 등 다양한 AI, ICT R&D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
<https://bit.ly/3jMXp2p>

자동차에 발목 잡힌 미 경제... '살 사람 많은데 팔 자가 없다' (연합뉴스)

지난 3분기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개인 소비지출이 17.6%(인플레이션 반영) 급감. 미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GDP 증가율은 0.5%(연율 2.0%)에 그쳤는데,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면 0.9%로 거의 두 배가 될 수 있었다는 지적.
<https://bit.ly/3biKkml>

GM, 자율주행 솔루션 스타트업 '오펜리' 투자 (THE GURU)

GM은 최근 4차원 레이더 부품 선도기업 오펜리(Openli)에 투자. 오펜리의 레이더 센서 기술을 토대로 자율주행 단계를 최고 단계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mni0G7>

현대차가 투자한 美 SES 일났다... '꿈의 배터리' 눈앞 (한국경제)

미국 SES가 주행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안정성을 보완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 내달 3일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어 '하이브리드 리튬메탈 배터리' 공개 예정.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주행거리 30% 상승 가능하며, 충전성능도 개선됨.
<https://bit.ly/3vUBPaG>

현대차, '블루오션' 인도에 올케 전기차 93대 판매... '진출시기 아냐' (머니투데이)

현대차·기아가 현재 인도 시장에 판매 중인 차종은 2019년 출시한 코나EV 하나이며, 올케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93대를 기록. 아직 인도는 구매력과 인프라가 부족해 전기차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의견.
<https://bit.ly/3bj8gWX>

\$12,500 EV Tax Credit Included In revised Biden Build Back Better plan (Teslarati)

12,500\$의 전기차 세금 인센티브가 바이든 Build Back Better 계획의 최근 버전에 포함됨.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는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축적. 미 노조 생산 차감에만 적용할지 여부는 미확인.
<https://bit.ly/3CBTFsk>

Tesla Model 3 Hertz order could increase to 150,000 vehicles, no FSD included (Teslarati)

Hertz와 Uber의 JV 성공 시, Tesla 주문을 15만 대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또한 이전에 발표된 10만 대의 Model3 주문에는 FSD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힘.
<https://bit.ly/3Bo5lvs>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